

해금 '조위현'에 초대합니다.

2011년 11월 30일(수), 오후 7시 30분

Program

활의 노래	작곡 이정면
무브먼트	작곡 조위현
진주유희	작곡 이준호, 편곡 조위현
시연가	작곡 이지영, 편곡 조위현
소설노니나	작곡 조위현
별곡 살어리	작곡 조위현

출연진

피리/건반_ 정주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원)

타악_ 최창용(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원)

타악_ 김명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원)

가야금 '조영아'에 초대합니다.

2011년 12월 3일(토), 오후 5시

Program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클레멘타인	편곡 조영아
달빛밝은 이 밤에	작자미상
별과 시	작곡 이건용
담배가게 아가씨	작사·곡 송창식 / 편곡 조영아와 친구들

출연진

타악_ 윤승환(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원)

기타_ 박현철(동아대학교 실용음악학과)

2011 점은 풍류

조위현·조영아

| 공연장(전람회의 그림) 오시는 길 |



※ 이 공연은 2011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과 울촌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1 점은 풍류

Talk Concert 조위현·조영아

2011. 11. 30(수) pm7:30 / 12.3(토) pm5:00
부산대학교 앞 전람회의 그림

| 주관 | 풍류공장, 한국음악문화학회

|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BSCF 부산문화재단

The Yachon Foundation 栗村財團

| 티켓 | 무료

| 문의 | 010.6575.7968



2011, 젊은 풍류를 기획하며...

2011 젊은 풍류는 저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음악인(꼭 국악전공자로 한정하지는 않겠습니다..)과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많은 국악공연이 있지만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 음악을 연주할 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하는 공연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국악팀으로도 구상을 해봤지만, 결국 핵심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악팀에서도 핵심적인 멤버를 초대하거나 제가 만나고 싶은 음악인을 만나고 그들의 음악과 이야기를 꼬집어내고 싶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지라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이 취지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공연의 핵심은 젊은 음악인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와 '애티튜드'입니다.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즐겁만한 국악 콘텐츠가 너무 부족하고 다양성이 없다는 점이 대중으로부터 국악이 소외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콘텐츠의 부족이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이지만 정작 간과하고 있는 문제는 '애티튜드'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티튜드'는 굳이 번역하자면 태도쯤 되는데, 저는 국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풍토, 음악에 대한 태도, 지향성 등등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대충 '음악을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태도'쯤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 애티튜드가 너무 소극적이고 보수적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아마도 이들을 가르친 기성 국악인들의 왜곡된 전통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음악을 하더라도 떳떳이 자신의 음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암묵적인 시각이 젊은 국악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음악을 하지 못하게 하는 큰 요인입니다. 이 '애티튜드'가 변해야 '콘텐츠'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졸지말고 자신의 음악을 고민하고 해라'가 저의 메시지입니다. 젊은 풍류가 이 '애티튜드'를 변하게 하는 조그만한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공연에 출연한 젊은 음악인과 함께해주시길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진호(기획 및 사회)

- 풍류공간 대표
-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강사
- 2009 영남젊은풍류
- 이말량의 풍류음악 복원 연주 기획
- 2010 영남삼현육각 재현 연주 기획
- 무속음악 및 지역의 전통음악관련 논문 다수

STAFF 박효빈
(부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학과 재학)

해금_ 조위현

사실 저는 이 공연을 구상하고 출연자를 섭외하기 전까지 조위현씨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부산대학교 국악학과(2011년부터 한국음악학과로 명칭이 바뀜) 졸업생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정도와 작년에 서울에서 처음 독주회를 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풍류를 기획하면서 처음이라 나이는 다소 있지만(위현씨 미안...ㅋㅋ) 안정된 연주력을 가진 연주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연취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출연해줄 수 있겠냐고 하니깐 흔쾌히 승낙하더군요. 이후 몇 번 만나서 음악을 하게 된 계기와 생각들을 들으니깐 저와 비슷하게 공감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비슷하다보니...ㅎㅎ)

제가 느낀 조위현씨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신의 원하는 음악을 하는 연주자입니다. 출연섭외를 하고 2010년 서울에서 했던 공연을 비디오 테입으로 봤습니다. 다소 엉뚱한 공연이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자신의 음악을 하는' 공연이었습니다. 이번 공연도 조위현씨가 작곡한 곡들이 연주되는데,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악분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기 위해서는 싱어송라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부산 지역에서도 조위현씨 같은 싱어송라이터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소설노니나와 별곡 살여리와 같은 곡들은 연주자의 개성이 많이 묻어나오는 작품입니다.



JO WI - HYEON

-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학과 졸업
-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 역임
- 현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원
- 아람국악연주단 대표
- 퓨전시나위 예타래 단원
- 부산예술고등학교 출강
-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지도

가야금_ 조영아

조위현씨를 처음 섭외하고, 사실 다음 출연자를 섭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 다. 이유는 저의 게으름에 너무 늦게 출연자를 섭외한 탓이지만, 사실 금전적인 문제로 공연을 할까 말까를 고민을 오랫동안 해서입니다. 그런 이유로 모두 개인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 조영아씨(이후부터는 그냥 영아...ㅋㅋ)가 고민 끝에 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실 영아는 제가 부산대 국악학과 조교로 있을 때 같이 일했던 T.A. 중 한 명입니다. 저를 부르는 공식적인 호칭은 선생님이지만 사실 정신적 육체적인 나이로 보면 오빠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제 생각입니다. ㅋㅋ

제가 본 영아는 가야금 연주실력도 뛰어나고, 음악에 대한 욕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특히 빠르고 다양한 리듬을 가야금으로 타는 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더 좋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있었으면 지금보다 자신의 음악을 많이 가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욕심이 있는 친구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영아하고는 공연 프로그램을 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연주하기를 원했고, 이 범위는 전통음악이던 창작음악이던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영아의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는 오랫동안 같이 했던 음악이고, 다른 프로그램도 영아가 애정을 가지고 함께 했던 음악입니다.



JO YOUNG - A

-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학과 수료
- 부산시 무형문화재
-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전수자
- 전 크로스오버 국악밴드 AVIO 동인
-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
- 효산가야금연주단원
- 울림소리국악연구소 대표